

M
A
S
K

O
F

마스크

2026
6.19-21

국립무용단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프로그램북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무용단 소유로,
재사용(개인 SNS 및 웹사이트 등)이 불가합니다.

인사말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 ‘가장 연한 초록에서 가장 짙은 초록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는 이양하의 수필 「신록예찬(新綠禮讚)」에서처럼 계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청년기를 살아내는 국립무용단의 단원들이 준비한 〈탈바꿈〉이 2024년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 〈탈바꿈〉은 2024년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후, 2025년 MODAFE(국제현대무용제) 폐막식 공연에 초청되었고, 올 11월에는 국립무용단 단원이 안무한 작품 중에서는 최초로 해외 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화 안무가는 2018년에 초연된 〈가무악칠채〉를 통해 이미 안무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립무용단의 〈사자의 서〉와 〈행 플러스마이너스〉, 〈파이브 바이브〉 등에서 조안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재능있는 춤꾼이기도 합니다.

●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준 안무가와 무용수 그리고 기획팀과 제작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젊은 무용수들의 열정과 패기, 실험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탈바꿈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안무노트

안무
이재화



버티는 몸이 마주한 변곡점.

● 한국춤은 찰나의 기교가 아닌, 오랜 시간의 무게를 몸으로 받아내고 기다려야만 비로소 터져 나오는 인내의 움직임이다. 이번 작품에서 탈춤은 탐미적인 대상이 아니다. 삶의 불편함과 정서를 이겨내는 끈질긴 생명력에 그 본질이 있다. 국립무용단이 박제된 미학에 안주하는 단체가 아님을, 그 투박하고도 깊은 정서적 울림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다.

● 안동의 한 마을에 걸린 수백 개의 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탈바꿈〉을 시작했다. 〈탈바꿈〉은 익숙한 전통이 서서히 풀어지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춤이 태어나는 ‘변화의 순간’을 담는다. 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여전히 유효한 현재진행형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 지금 가장 우리다운 춤을 만들기 위한 답을 찾으려 했다.

● 전통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춤이 고정된 형식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음(Becoming)’을 보여주고자 한다. 익숙함을 지나 낯센으로 나아가는 이 전환의 기록이, 한국춤의 내일을 향한 조심스러운 제안이 되길 바란다.

음악노트

작곡·음악감독

박다울



-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변화의 소리’였다. 변화는 어느날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익숙했던 것을 낯설게 만들며, 마침내 전혀 다른 존재로 나아간다. 〈탈바꿈〉의 음악은 바로 그 과정 자체를 담아내고자 했다.
- 오랜 시간 민중의 삶과 함께하며 웃음과 풍자, 저항과 해방의 정서를 품어온 예술인 탈춤을 전통음악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에너지와 정신을 현재의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집중했다. 전통악기의 울림이 전자음과 만나고, 익숙한 리듬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변주되며, 집단적 에너지가 음악과 만나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우리 사회의 기억과 공동체의 정서를 품어온 싱어송라이터 한돌의 ‘터’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딛고 서 있으며, 어떻게 버텨왔는가에 대해서 담아내고 싶었다. 원곡이 주는 정서와 그것이 변주되어, 때로는 익숙한 멜로디의 파편으로, 때로는 리듬과 음향의 흔적으로 등장하며 감각의 변화를 함께한다.
- 탈춤이 과거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듯, 음악 또한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감각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변화는 낯설고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창조의 순간이기도 하다. 〈탈바꿈〉의 음악으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관객은 새로운 감각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

무대디자인 노트

무대디자이너
신승렬



● 〈탈바꿈〉의 무대는 탈춤을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기원과 호흡, 그리고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체감하게 하는 장이다. 이 작품에서 ‘한국적’이라는 것은 외형적 장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축적된 버티는 힘과 견뎌내는 감각으로 정의된다. ● 무대의 중심에는 무용수가 직접 움직이는 회전 구조가 놓인다. 이 구조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반복되는 노동과 멈추지 않는 몸,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되는 시간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무용수들이 구조를 돌리는 행위는 점차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은 집단의 호흡으로 확장되며, 결국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 반복은 단순한 동작을 넘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몸의 기도로 작동한다. ●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에너지는 ‘투혼’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나 상징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몸, 무너지지 않는 반복, 그리고 집단이 함께 만들어내는 긴장 속에서 축적되는 압력으로 존재한다. 투혼은 외부로 발산되기보다,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상태로써 관객에게 감각된다.

● 탈은 이 축적된 에너지가 전환되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탈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바꾸는 사건이다. 개인의 몸은 탈을 통해 다른 존재로 이행하고, 억눌린 상태는 해방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무대는 더 이상 개별적인 몸들의 집합이 아니라, 집단이 형성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이미지로 이동한다.

● 무대 공간은 하나의 구조이자 ‘얼굴’로 작동한다. 개별의 탈과 몸, 그리고 빛이 결합되며 공간 전체가 하나의 집단적 얼굴을 형성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집단의 상태이자, 탈춤이 지닌 공동체적 근원과 맞닿아 있다.

● 결국 〈탈바꿈〉의 무대는, 돌리는 몸에서 시작된 반복이 시간으로 축적되고, 그 시간이 기도로 전환되며, 마침내 하나의 얼굴로 드러나는 과정을 담아낸다. 이 무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며, 끝내 변화하는 몸의 상태를 관객이 함께 경험하도록 만드는 공간이다.



프리뷰

뉴시스
이재훈 기자

● ‘탈바꿈’은 탈피(脫皮), 즉 허물벗기다. 낡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가리키는데, 그건 진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말도 없이 오천년을 살았네 / 모진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가수 한돌 ‘터’ 중)라는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저 산맥처럼 변함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우선 버텨야 한다. 사실 춤을 추는 것도 버텨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중력과 관성을 버텨야 하며, 탈 아래 얼굴이 응축한 정신적 감정과 신체에 응집한 물리적 감성의 균형을 위해선 함부로 달떠서 안 된다. 그러니, 정말 어려운 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 안무가 이재화의 〈탈바꿈〉이 그걸 보여준다. 아홉 무용수가 탈을 바꾸는 과정에서, 움직임의 물성과 감정의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는데 어느 하나 버텨내지 않은 순간이 없다. 그 삭여내는 순간들이 다른 대목들로 변모한다. 무게중심을 낮게 깔 채 넘실대는 전통 탈춤 고유의 호흡과 맺고 푸는 리듬이, 씩 없이 교차하며 공간감을 형성한다. 스트리트 댄스, 웨이브 등 현대의 몸동작이 더해지면서 펑키, 재지(Jazzy)적인 분위기까지 녹아든다.



● 〈탈바꿈〉 무대 중심에 놓인 큰 회전 구조 오브제가 컴퍼스 (compasses)처럼 회전하며 다양한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낸다. 그건 버터내는 공동체 삶에 대한 은유다. 회전 구조가 돌면서 구획 짓는 공간성은, 한국사회의 계급성을 사회문화 맥락적으로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기생충’ 속 현실 계급을 떠올리게 한다.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드러내는, 탈춤의 현대적 변용이다.

● 무용수들은 회전 구조를 중심으로 춤을 추거나 달리거나 돌고, 땅을 밀어낸다. 이 모든 동작들은 속력이 아닌 속도다. 속력은 절대적인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 속도는 속력의 크기뿐 아니라 방향에 대한 정보까지 갖는 벡터다. 이 안무가의 〈탈바꿈〉은 삶의 방향성까지 담보하고 있는 벡터다. 여기에 회전하는 오브제로부터 파생되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 삶의 중심축을 잡으려는 무용수들의 간절한 구심력과 뜻하지 않게 반경을 크게 넓히려고 하는 이들 삶의 원심력이 서로 균형을 찾고자 아우성치며 접전을 이룬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용수들의 열기와 에너지가 객석 전방위로 퍼져나간다. 회전 구조를 밀고 끌고 돌리는 가운데 빚어지는 집단적 에너지는 기어코 하나 된 맥박을 찾아낸다.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와 평안을 자연스럽게 탐색한다. 다시 말해, 원심력과 구심력이 맞물리는 건 일종의 장(場)을 만드는 일이다. 탈춤은 마당에서 출발했다. 흙냄새를 맡고 땅의 기운을 받는다. 계급의 경계도 허문다. 이 안무가의 〈탈바꿈〉은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의 호흡으로 환기한다.



● 거문고 연주자이자 밴드 ‘카디(KARDI)’ 멤버인 박다울이 음악을 맡아 이 안무가의 문법에 좀 더 확실한 화법을 부여한다. 박다울을 비롯해 김진산(기타) 김태한(대금) 조한민(타악) 최연형(드럼) 5인 밴드의 박진감 넘치는 연주는 무용수들의 동작들과 긴장감을 형성한다. 특히 전통 가락 위에 지금의 걸을 지닌 밴드 사운드, 전자음악을 총총이 쌓아 올리는 과정은 “산 좋고 물 좋고 얼씨구 좋다”라고 외치는 탈춤의 에너지와 이질감 없이 공명한다. ‘개똥벌레’의 작사·작곡가로 잘 알려진 포크 싱어송라이터 한돌의 ‘터’가 테마곡처럼 변주되며, 지난한 세월을 위로하고 다스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요음, 조승열, 박소영, 강대현, 선승훈, 박준엽, 김나형, 이승연, 정상화 아홉 무용수도 삶의 중력을 나누어 짊어지게 된다.

● 사실 탈을 쓴 채 춤을 추면, 탈 없이 춤을 출 때보다 몇 배 더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 산소가 부족한 건 물론 시야도 좁아진다. 반대급부도 있다. 얼굴을 가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몸짓은 물론 말투, 성격도 해당 탈과 연관돼 변모한다. 탈은 하나의 고정된 표정인데 무용수들은 그 안에서 웃고 운다. 이 감정의 진동을 몸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순간은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환희다. 〈탈바꿈〉에선 막판에 무용수들이 발광다이오드(LED) 탈을 쓴다. 이 탈은 표정을 수시로 바꾼다. 이 탈바꿈(MASK OFF)은 익명성이 아닌 여러 표정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독일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설명을 빌리면, 페르소나(persona)는 사회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가리킨다. 일종의 ‘가면’, 즉 탈이다. 반대로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성격은 그림자(shadow)라고 한다. 〈탈바꿈〉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관계를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풀어낸다. 융 사상의 핵심은 자기(Self)·자아(Ego)의 실현이다. 의식의 중심이 ‘자아’라면 의식·무의식을 합친 전체 정신의 중심이 ‘자기’다. 아홉 무용수는 〈탈바꿈〉마지막에 탈을 벗는다. 고정된 탈과 계속 변화하는 LED 탈을 거쳐, 무의식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기실현’을 이뤄낸다. 작품 초반 육체적인 물성이 도드라지는 그로테스크한 움직임이 극 후반에 좀 더 매끈해지고, 그루브감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익숙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계보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게 저 산맥처럼 버티고 또 버텼던 뒤 본인의 얼굴 즉, 자신만의 서사가 담긴 스토리텔링이 완성되는 것이다.

● 이견 한(恨)과 해학의 정서로 치환 가능하며, 결국 버텨서 이뤄낸 해방의 역사로 해석된다. 이런 감각을 무용수들의 놀이성을 통해 관객들이 간접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용이 할 일이다. 〈탈바꿈〉은 기존 탈춤의 도식성을 해부한다. 기계적인 삶의 인위성이 아닌 우연성을 몸의 씨줄과 텍스트의 날줄을 엮어 풀어낸다. 이를 통해 작품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유비된다.

● 작가 김연수의 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엔 이런 구절이 있다.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삶의 한 장치인데, 이것을 겪은 사람과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틈과도 같은 것이다.” 탈을 가리키며 달리는 〈탈바꿈〉은 무용수들의 개별 집단적 경험을 객석에 전이한다. 이 경험을 해 본 관객과 해보지 못한 관객 사이에도 탈만큼의 틈이 벌어진다. ‘한국적인 춤’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이 안무가가 탈춤을 소재로 삼아 현재 가장 우리다운 움직임을 훑아보는 〈탈바꿈〉은 우리 춤, 우리 정서에 대한 집단 체험이다. 지극히 개성적 연술로 보편성을 획득하는 묘수를 둔다. 〈탈바꿈〉은 그러니까 탈춤을 다시 정의하는 탈춤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네 공동체성의 본질을 환기하는 탈바꿈이다. 우리의 진정한 얼굴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지키고 변화시켜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묻는 몸의 태도에 대한 질문처럼도 보인다.



● 이처럼 버틸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 계속 묻고 있는 윤리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는 이 작품이 갖고있는 미학의 절정이다. 탈바꿈한다는 건 애초 어려운 일이고, 오늘날 전통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통의 장에서 버티면서, 예술도 삶도 버텨내는 건 일종의 의지다. 예술도 삶도 모두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서 회한의 세월, 지난한 현재와 화해하고자 하는 결기다. 즉 묵묵히 ‘버티는’ 시간은, 본질과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터에서 자신을 예리하게 ‘버리는’ 숭고한 과정과 맞닿아 있다. 〈탈바꿈〉은 그래서 우리의 장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 〈탈바꿈〉은 계단식 성장의 전범으로도 자리매김했다. 기존 30분 러닝타임 규모가 60분으로 늘었는데 밀도가 성기기는커녕, 새로운 서사와 정서를 빨아들이며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2024 안무가 프로젝트’ 우수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5 MODAFE’ 폐막 초청 공연을 통해 평단뿐 아니라 관객들 사이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태어난 데 이어 추가 변화와 확장을 거쳐 오는 10월엔 미국 2개 도시 투어에서 다시 탈바꿈한다.



작품소개

탈바꿈 (MASK OFF)

1. 명사 가면을 벗다.
2. 명사 원래의 모양이나 형태를 바꿈.

* 유의어 변모 변신 변태 탈피

탈을 벗는 순간, 다시 태어난다

● 안무가 이재화는 〈탈바꿈〉을 통해 ‘지금 가장 우리다운 움직임’이 무엇인지 묻는다. 작품 속 탈은 얼굴을 가지는 장치이자 또 다른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상징적 매개로 작동한다. 탈을 쓰는 순간 개인은 이름과 신분, 사회적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고, 탈을 벗는 순간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 사이, 각기 다른 탈 속에 감추어져 있던 감정들은 서로의 호흡과 부딪히며 공동체의 에너지로 확장된다. 〈탈바꿈〉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 가면 뒤에 숨겨진 감각이 몸을 통해 드러나고 다시 움직임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전통의 감각을 흔들고,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쓰다

● 작품은 강령탈춤, 봉산탈춤, 고성오광대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 탈춤의 몸짓에서 시작되었으나, 전통의 감각을 재현하거나 복원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굽이치는 호흡과 낮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치솟은 중심, 멈추는 듯 이어지는 리듬, 익살과 긴장이 교차하는 구성 등 전통에서 길어 올린 감각을 오늘의 신체 언어로 비틀고, 흔들고, 다시 엮어내며 전통의 움직임의 살아 있는 현재형으로 바꾸어 놓는다.

● 국립무용단 〈탈바꿈〉은 탈춤을 동시대의 감각으로 다시 읽어내며, 지금 우리의 몸이 품고 있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이다. 2024년 〈안무가 프로젝트〉우수작으로 선정되고, 2025년 MODAFE(국제현대무용제) 폐막작으로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작품은, 올해 더욱 확장된 규모와 밀도로 돌아와 한국춤의 새로운 걸을 펼쳐 보인다. 전통과 변화 사이의 긴장과 충돌, 해체와 재구성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몸의 감각을 무대 위에 선명하게 드러낸다.

● 이번 무대는 초연의 30분 규모에서 60분으로 확장되며, 서사와 움직임의 밀고, 장면 간 연결, 군무의 호흡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국립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집단적 움직임의 힘은 작품의 에너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구현하며, 각기 다른 몸이 서로 충돌하고 얹히고 확장되는 장면 속에서 탈춤의 본질적인 역동성을 새롭게 체험하게 한다. 객석 곳곳에서 등장하는 탈꾼들의 재간과 움직임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을 작품의 호흡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라이브 밴드와 실험적 무대가 만들어낸 감각의 장

● 〈탈바꿈〉은 움직임뿐 아니라 음악, 무대, 의상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강렬한 감각적 장을 만든다. 무대디자이너 신승렬은 탈춤의 원시적 기원을 모티브로, 때로는 거대한 탈의 형상으로, 때로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마당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무대를 구현한다. 무대 중심의 회전 구조물은 반복되는 몸의 상태와 멈추지 않는 움직임을 상징하며, 무용수들은 이를 밀고 돌리며 새로운 리듬과 집단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공간 속에서 탈과 몸, 빛이 중첩되는 순간 무대는 하나의 거대한 얼굴처럼 살아 움직인다.

● 작곡·음악감독을 맡은 박다울이 이끄는 5인조 라이브 밴드는 전통 리듬 위에 전자음악과 현대적 밴드 사운드를 겹겹이 쌓아 올리며 무대의 현장감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의상디자이너 김지원의 감각적인 의상은 전통적 소재의 탈춤과 동시대적 스타일을 충돌시키며 작품 특유의 키치하고도 생생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이처럼 〈탈바꿈〉은 탈춤이라는 전통을 단순히 오늘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몸과 감각, 리듬과 에너지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무대다. 전통의 기억은 이곳에서 낡은 형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확장되며 다시 태어나는 현재진행형의 움직임으로 새롭게 호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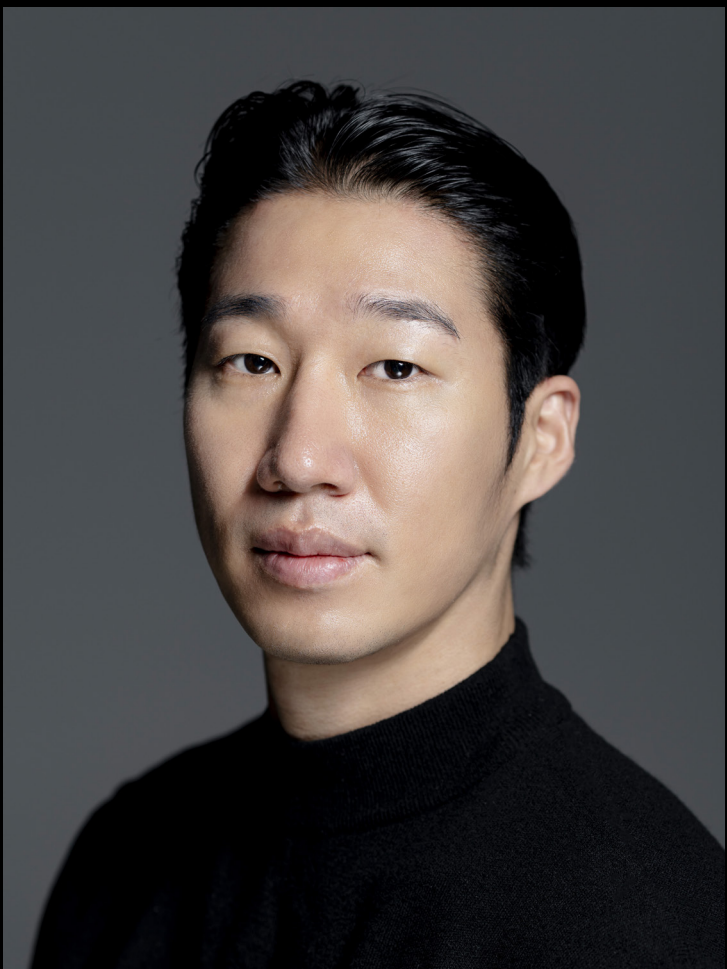


출연진

국립무용단원



이요음



조승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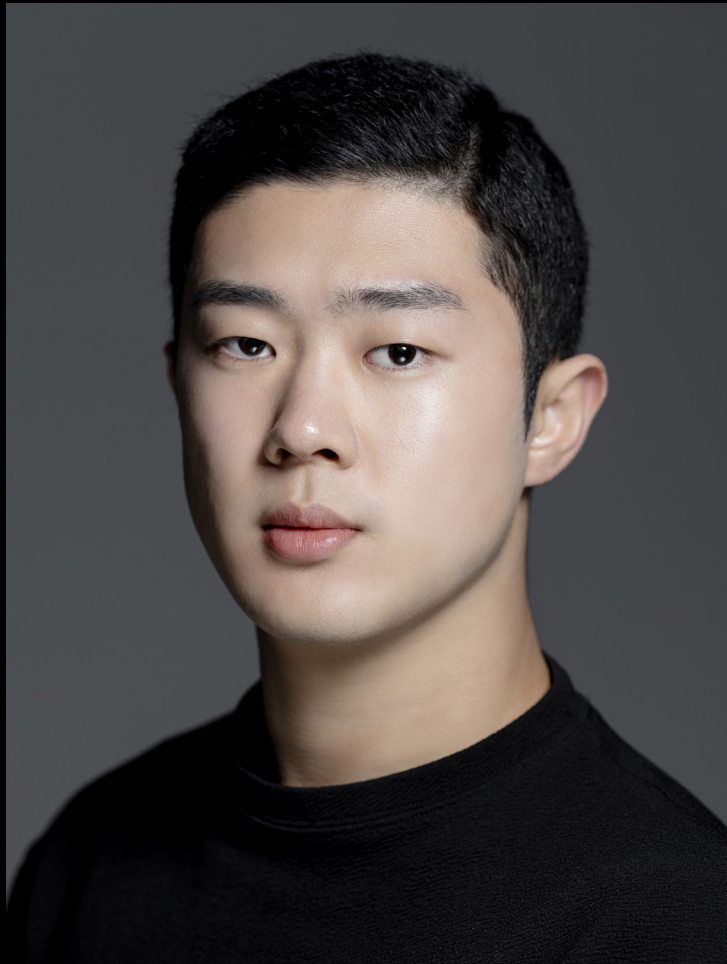
박소영



강대현



선승훈



박준엽



김나형



이승연



정상화 (객원)

출연진

연주



김진산
기타



김태한
대금, 태평소, 타악



박다울
거문고



조한민
타악



최연형
드럼





창작진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안무 이재화

작곡·음악감독 박다울

무대·소품디자인 신승렬

의상·장신구디자인 김지원

조명디자인 원재성

음향디자인 이상현

영상디자인 임영선

무대감독 오상영, 양정원

의상감독 조근하

소품감독 채수형

장신구감독 김은경

작화감독 김유리

탈춤교육 허창열, 박인선

홍보물디자인 워크룸

홍보영상, 연습사진 스튜디오 것

옥외홍보물 대일특수

재활트레이닝 롤링엔웨이브

국립무용단 소개

1962년에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 단장인 송범을 시작으로 조흥동·최현·국수호·김현자·배정혜·윤성주·김상덕·손인영에 이어 현재 김종덕이 예술감독 겸 단장을 맡고 있다.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는 전통춤 모듬 〈코리아 환타지〉, 무용극 〈춤, 춘향〉, 세련된 한국 춤 〈묵향〉 〈향연〉, 해외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춤의 가능성을 확장한 〈회오리〉 〈시간의 나이〉 등이 있으며, 전통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미학의 춤 예술로 한국창작무용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한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립무용단원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춤사위로 관객에게 행복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국립무용단은 현재의 감동이자 미래의 전통이 될 풍성한 레퍼토리와 신작 개발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 있다.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훈련장

장현수

정현숙

이석준

수석

김미애

정세영

조용진

황태인

박소영

부수석

정길만

정소연

김은이

박혜지

이도윤

선승훈

이승연

단원

김현숙 김현주 김원경

윤성철 박재순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정관영

이세범 최원자 이윤정

박기환 엄은진 김희정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조현주 이의영

박지은 황용천 송지영

이재화 이요음 조승열

박준명 박수윤 이태웅

강대현 이재인 김나형

박준엽

국립무용단 인스타그램

@ndckorea

국립극장 제작진

극장장 직무대리
김석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책임프로듀서

오지원

프로듀서

오수정

박슬기

총무

변승희

청년행정인턴

민세희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전속단체공연지원팀장

채인영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이종민 박양미 박명빈

물리치료실

송기현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권태연

행정

이용희 송성남 이소라

책임프로듀서

이재금 이서정

마케팅

이아림 김수린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혜진 임지은

티켓마스터

정연정 오윤지 김재경

공연안내

이지윤 정지윤 이인영

유아놀이공간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이정행

행정

김홍석

안전관리

최성훈

무대감독

오상영 양정원

기계감독

이정환

기술지원

김진년

조명디자인·감독

원재성

프로그래머·오퍼레이터

이준

기술지원

박문섭 주영석 김종락 이희선

공미진 최기준 신의정 함승완

은명희

음향디자인·감독·오퍼레이터

이상현

기술지원

김은희

영상디자인·감독·오퍼레이터

임영선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정복모

행정

김성식

장치감독

강규한

기술지원

강승구 박일천 김정규 유민석

김항원 김선우 윤하은 황인석

최재림 김강현

작화감독

김유리

기술지원

박순용 최다정

소품감독

채수형

기술지원

홍재민 박현이 김민주

장신구감독

김은경

기술지원

이주선

의상감독

조근하

기술지원

김효영 유상현

무대예술지원센터 감독

김재영

기술지원

한형석 김혜선 조가현 오가연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석일

홍보팀

홍보팀장

방강덕

행정

정재우

책임프로듀서

우다슬

홍보팀

정선영 박은영 구해나 이다빈

김은채 이주한 안수진 유정수

정일석 노승관

후원



국립극장

인스타그램 ntong_ntong

유튜브 ntong2

블로그 ntok2010

페이스북 NTOKstory

WHAT'S NEXT?

세상을 바꿀 NEXT 산업을 지원합니다



